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

국어,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
지난해 이어 다시 '불수학' 흐름
영어 빈칸추론 문제 난이도 낮아져



31일 울산 중구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시스

수능 전 마지막 시험인 9월 모의평가가 31일 실시됐다. 이번 9월 모평은 최대 N수생이 모인 만큼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상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을 3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2023학년도 9월 모평도 지난해에 이어 2022학년도 통합형 수능 체제로 적용됐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되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적용해 간접연계 방식을 확대했다.

◆국어영역 다소 쉽게 출제...본수능은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이번 9월 모평 국어영역은 공통과목이 쉬웠던 반면, 선택과목에서 난이도 차이를 보였다. 진학사는 언어와 매체에서 중세국어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음에도 화법과 작문 대비 고난도 기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화법과 작문은 자료 해석 문항이 마지막 문항으로 배치되면서 시간이 촉박했을 수는 있지만 난이도 자체는 평이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공통과목이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발견되면서 표준점수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 높아졌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도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4점 차이가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금년 9월 모평도 지난해 9월 패턴으로 6월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지난해 상황을 고려해 본수능에서 9월

수준으로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단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모평에서도 언어와매체 1등급 컷 96점, 화법과작문 1등급 컷 100점으로 매우 쉽게 출제됐지만 본수능에서는 언어와매체 1등급 컷 84점, 화법과작문 1등급 컷 86점으로 대폭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 줬다.

◆작년에 이어 다시 '불수능 불수학'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까다롭게 출제되던 기조가 유지된 수학영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출제됐다. 특히 공통과목에서 킬러문항으로 꼽히는 22번 문제는 까다롭게 출제됐으며, 수열 문제였던 15번 문항은 계산 과정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편이라 수험생들이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되고, 확률과 통계 및 기하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이투스 에듀는 미적분에서 등비급수와 도형 문제(27번)가 2023학년도 6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삼각함수 극한의 도형 활용 문제(28번)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9번 문항의 난이도가 도형 관련 문항인 27번, 28번 문항의

난이도와 비교해 비교적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27번, 28번 문항에서 풀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가 주요 변수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영어 2등급 급증 예상... 수능최저 전락과목 꼽힐 수도

지난해 수능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은 6.25%로 쉬운 편에 속했다. 종로학원은 이번 9월 모평 영어영역도 평소 2~3등급대 학생들이 1~2등급 안으로 대거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고 평가했다. 2등급 이내 진입 학생이 급증한다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전락과목으로 꼽힐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본수능 2등급 이내는 27.9%였으며 3등급 이내는 53.1%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진학사 역시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빈칸추론 문제들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학습량 저조를 고려해도 쉬운 난이도라는 설명이다.

다만 종로학원에서는 "9월 모평과 본수능의 난이도 격차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쉬워진 패턴 그대로 마무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시설 지하·현대화”

서울시, 기존시설 2035년까지 철거
토지 취득 위한 비용 절차 불필요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설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6만여개소)을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배제기준을 적용해 36개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하고, 5개 분야(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

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영향권역(300m 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고,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해당 장소는 사유지여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 가능해 타 후보지보다 우수하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마포 상암동 후보지 인근에는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시민이 선호하는 한강이 있다"며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명품 명소로 만들어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든다. 특히, 배출가스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

격하게 관리한다.

시는 마포 상암동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수영장, 놀이공간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 결과가 공고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마포시설을 지하화해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 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건립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항공사진. /서울시

감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우리 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는 수십 년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배출한 약 8000만대 분량 쓰레기를 매립 처리한 난지도로 인해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이밖에도 1968년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로 62가구는 실랑민 신세가 되는 등 우리 구민은 서울시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고

통과 불편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이러한 결정은 37만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적을 떠나 모든 마포구민과 합심해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결정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자체대응 TF팀을 구성했으며, 향후 민관합동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ik1@

SBA, 'K-뷰티테크 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바르셀로나 현지 기술·서비스 실증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국내 뷰티테크 스타트업의 바르셀로나 현지 기술·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3개 스타트업이 15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한 바르셀로나 최대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글

로리아스'에 진출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전시·시연 등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 실증에 나서게 된다.

'웨스트필드 글로리아스'는 바르셀로나 도시계획의 일부로 만들어진 대형 광장에 자리한 쇼핑몰이다. 의류 패션 등 150개 이상의 브랜드 매장과 레스토랑, 영화관이 입점해있다.

SBA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제품을 선보이는 시험대이자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PoC·Proof of Concept)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BA는 작년 한국무역협회(KITA)와 함께 3D 디스플레이, 모바일 스탬프 등 12개 기술 스타트업의 기술실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K뷰티의 기술력 수출에 집중하기 위해 '뷰티테크' 기술의 진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개최

전 세계 해외 바이어들에 홍보

서울시가 고부가 가치 관광수요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을 개최한다. 전 세계 해외 바이어들에게 럭셔리 관광지 서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첫 글로벌 이벤트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럭셔리 관광커뮤

니티인 '커넥션스 럭셔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9월 1~4일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을 진행한다

31일 밝혔다. '커넥션스 럭셔리'는 유럽 최대의 트래블&호스피탈리티 B2B 미디어 회사인 제이콥 미디어 그룹 산하 커뮤니티로, 영국·유럽 등에서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사업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